

'전주 도서관 여행' MZ세대 · 나홀로 여행객 급증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운영 전반 만족도 96.87점 · 재참여 의사 98.1% 기록

전주를 대표하는 인문관광 콘텐츠인 '전주 도서관 여행'이 자신의 독서 취향을 공유하고 책으로 개성을 드러내는 텍스트릴 열풍과 함께 20·30대 MZ세대와 나홀로 여행객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상반기 전주 도서관 여행의 상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6.87점을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4월 4일 시작된 상반기 전주 도서관 여행은 도서관과 연계해 지역서점 및 정월 산책코스 등을 신설하며 4월 프로그램 사전 접수가 5일 만에 전코스가 마감되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한 번 참여한 여행자들의 재참여 의사가 무려 98.1%에 달해, 전주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의 매력을 증명했다.

또한 설문 응답자 262명(성인 참가자 436명)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5.4%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전주를 대표하는 인문관광 콘텐츠인 '전주 도서관 여행'이 자신의 독서 취향을 공유하고 책으로 개성을 드러내는 텍스트릴 열풍과 함께 20·30대 MZ세대와 나홀로 여행객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했으며, 동반자 없이 여행을 신청한 '나홀로 여행객'도 24.8%를 기록해 전년 대비 8%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 도서관 여행을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고 응답한 비

율이 89.6%, 타지역 참가자(54%) 중 2일 이상 전주에 머무는 여행객 비율 또한 52%로 과반을 넘기면서 전주 도서관 여행이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를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했다.

도서관 여행을 접하게 된 경로는 지인 소개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SNS(29.2%)를 통한 참여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또,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는 '이중호수도서관'(18.9%)과 '학산숲속시집도서관'(14%) 등이 꼽혔다.

시는 하반기에는 상시 도서관 여행과 더불어 기관 대상, 특수학교 학생 대상 도서관 여행을 운영하고,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주 3대 책축제(전주 책페스티벌, 전주독서대전, 전주국제제책페스티벌) 연계 △전국민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 '전주(書) 스테이' △전북도 외 직장인 대상 '워케이션' 도서관 여행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SNS 홍보를 강화하고, 장기 여행자를 위한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인택 전주시 도서관경영생각본부장은 "전주 도서관 여행을 통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세계가 넓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여행자의 소감처럼, 하반기에는 차별화된 코스로 전주도서관 여행을 운영해 전주가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책과 함께 머무는 여행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전주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밑그림 그린다

전주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갖고 추진 방향·실천 전략 제시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로 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전주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기존 '전주시 환경보전계획(2017~2026)'의 계획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의 전주시 환경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윤동욱 부시장과 관계부서,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계획 과업 추진 방향과 수행 계획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환경계획 수립 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주시 환경 현황 및 여건 분석 △기존 환경보전계획 이행 평가 △시민 환경 의식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분야별 환경정책과 실행 과제 발굴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향후 수립될 환경계획과 함께 고려한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로 했다.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간환경 분석을 활용해 생활권별 환경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과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 부서와 전문가, 시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해 전주시민의 특색 있는 환경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 현황 조사와 시민 의견 수렴, 분야별 계획 수립 등을 거쳐 환경계획(안)을 마련한 후 환경청 협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 부시장은 "이번 환경계획은 전주시의 미래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정계획인 만큼, 환경보전과 도시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 실행력 있는 과제를 담아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운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10일 전주중앙중학교에서 이 학교 2~3학년 학생 26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Dream Future School' (이하 진로박람회)을 개최했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진로박람회는 청소년의 디지털 활동 역량과 미래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로박람회는 △디지털Zone △환경Zone △금융Zone △잡(Job)다한 세상Zone 등 4개 영역으로 운영됐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드론조종사와 생명과학자·그린바이오 전문가, 금융사회복지사, 파티세, 경찰관 등 13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복지안전망 강화로 '시민 돌봄 책임 도시' 박차

전주시복지재단, 복지사각지대 해소·위기·고립가구 회복 등 전주형 안전망 역할 특출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지난 상반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고립가구 회복, 시민참여형 복지공동체 조성 등 공격적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민선9기 전주시가 제시한 '시민 돌봄 책임 도시' 실현에 발맞춰 나눔사업과 모금사업, 금융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위기가구 지원부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까지 시민 삶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했다.



새로운 복지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였다.

실제로 재단은 지역 내 10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방역과 영양개선, 건강검진 등 회복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사업을 통해 시설 이탈 노숙인 지원과 청년 사회봉사 지원,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세대 간 연결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를 넓혀왔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업의 자발

적 기부로 운영되는 연합모금사업의 경우 지난 상반기 849명이 참여해 5억700만 원이 모금됐으며, 지정기탁사업은 20개 사업에 총 2억3800만 원이 지원됐다.

여기에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 상반기 1539건의 금융 상담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47건의 개인회생·파산 지원을 통해 약 73억 원의 채무를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금융 피해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도 함께 펼치며,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와 금융을 잇는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공격적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직접지원과 위기고립가구의 회복 지원,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주형 복지안전망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17개 공한지 주차장 환경정비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도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공한지 주차장에 대한 환경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대중교통과와 완산구청, 덕진구청 직원 20여 명이 전북경찰청과 하가지구 일원 공한지 무료주차장 17곳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주차라인과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점검하는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공한지 주차장은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류 부지를 발굴해 해당 토지구와 협약해 3년 이상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시는 현재 84개(완산구 51개, 덕진 33개) 공한지 주차장에 총 1670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 중이다.

시는 그동안 완산·덕진구청에서 공한지 주차장을 상시 점검·관리해왔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 관리에 한계가 있어 시·구 합동 점검에 나서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정기적으로 공한지 주차장과 무료공영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해 주차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126년 역사의 군산항
군산새만금항신항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비안도, 두리도, 군산새만금항신항

군산시